

작업치료를 대상으로 한 노인 인식 및 의사소통 현황

박성지*, 한희원**, 정유진***, 우희순****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원광대학교병원 작업치료실 작업치료사

****원광대학교 작업치료학과/환경과학연구소 교수

— 국문초록 —

목적 : 국내의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작업치료의 주요 영역들에서 노인들과의 대면하는 비율이 높은 현 상황에서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병원 및 보건소 등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중재를 제공하는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노인에 대한 인식, 노인과의 의사소통 저해요소, 노인과의 의사소통 방식을 묻는 3종의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최종 82부를 자료 분석에 활용하였다.

결과 : 작업치료사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항목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저해요소로서 청각 관련, 언어이해 관련, 조음 관련 순으로 응답하였다.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방식을 확인한 결과 작업치료사들은 대화반응 관리, 정서표현, 이해증진, 관계조절 순으로 노인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작업치료사들은 대상자들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증진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전문가인 만큼 노인들의 의사소통 방식 및 자신의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된 의사소통 방법을 통하여 전문적인 치료적 중재 및 관련 교육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인식, 의사소통, 작업치료사

I. 서론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이는 고령인구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들어서는데

17년이 걸린 것으로, 기존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로 알려진 일본의 24년과 비교하여도 확연히 빠른 속도이다(Statistics Korea, 2019). 국민건강보험 주요통계(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7)에 따르면 2016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진료비가 25조 187억 원으로

교신저자: 우희순(inhoo2k@naver.com)

접수일: 2020년 11월 11일 심사일: 2020년 12월 10일 게재승인일: 2020년 12월 25일

전체 진료비 대비 38.7%를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14%의 고령인구에 의료자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통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평균 2.6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이 1개 증가 시 의료비 지출이 연평균 70만원 정도 증가한다(Jeong et al., 2014). 고령 인구의 증가는 노화로 인한 각종 신체적, 경제적 및 역할 상실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더불어 보건의료 영역의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Kim & Kim, 2017a).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5년 전국 조사에서도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가 59.7%로 꼽혔으며 고령일수록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tatistics Korea, 2016).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는 질병의 직접적 치료를 넘어서 건강한 삶을 위한 제반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보건 측면의 다양한 지원을 의미한다. 이는 일차적 질병이나 장애보다 그로 인한 이차적 기능수행 변화에 초점을 맞춰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의 활동과 참여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이끌어내는(Song, Woo, Lee, Lee, Kwon., & Cha, 2016) 보건의료 전문 영역 중 하나인 작업치료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정 질환이 없더라도 노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식사, 몸단장, 배변과 같은 자조능력보다도 의사소통능력의 저하가 두드러진다(Kim & Kim, 2009). 노화가 진행될수록 문법판단 및 구문오류를 수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하며(Kim & Yoon, 2016), 기억력과 집중력의 저하로 인해 장황하고 반복적인 발화를 이어가거나 문맥을 적절하게 유지하지 못하기도 한다(Kim & Kim, 2017b). 또한 비유어나 상징어에 관한 맥락적 해석에 어려움을 보이고, 언어적 단위가 길어질수록 낮은 이해도를 보여 타인과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활동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한다(Kim, 2017; Lee, 2015).

이렇듯 노화로 인한 의사소통 능력의 저하는 노인들의 정서적, 사회적 고립을 유발시키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실제로 노년기 삶의 만족도는 의사소통의 수준과 양상에 따라 달라지며, 의사소통 능력이 노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서 제안된 바 있다(Fowler, Gasiorek, & Giles, 2015). 노인의 의사소통 능력은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기능에 관여하기 때문이며(Forte, Boreham, De Vito, & Pesce, 2015), 기능적 능력을 넘어서 타인과 소통하고 감정을 교류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의사소통을 통해 신체적 안녕을 위한 정보적 동기(informational motivation)와 더불어 심리적 안녕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동기(social motivation)를 충족시키게 된다(Sims, Reed, & Carr, 2017).

최근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질환에 대한 일차적 치료의 관점에서 나아가 사회적 교류와 다양한 활동에의 지속적 참여를 보장해주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Ko, Oh, Baek, & Lee, 2012). 이는 건강의 정의를 '단순히 질병이나 결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한 세계보건기구의 생명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1984). 국내 임상 현장에서도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해 만성질환 관련 교육, 운동프로그램, 방문건강관리, 영양·식생활 교육 및 관리와 같은 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Han, Lee, Cho, & Im, 2015; Sunwoo, 2016). 운동, 영양, 흡연, 음주, 스트레스, 휴식과 수면, 사회 참여, 생활의 활기 등 노화와 관련된 다양한 생활습관 및 생활양식을 동시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Kim & Jung, 2009; Lee, Um, Yoshiko, & Kazuo, 2012). 이러한 다면화된 접근을 위해서는 노인 대상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현재의 면밀한 건강 상태 파악 및 대상자들의 의사소통 수준을 고려한 눈높이 교육이 필수적이다.

노화와 질병이라는 취약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그 안에서 만나는 보건전문가들과의 관계는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좌우하는 주요 변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들에게 중재를 제공하며, 노인들은 당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관계적 불평등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다(Kim, Ju, Oh, & Yoon, 2019). 고연령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인 연령주의(ageism)는 보건의료 종사자들에게도 만연하다는 연구들이 있고(Park, Seo, & Kim, 2007; Shin & Lee, 2012), 이러한 연령주의가 결국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제시된 바 있다(한다(Mellor, Chew, & Greenhill, 2007). 이에 긍정적인 노년기 인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보건의료적 중재 제공을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없는지에 대한 보건의료인 스스로의 자각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

한 노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노인들은 특정질환이 없더라도 의사소통의 저하를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이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의 경우 노인들의 노화를 고려한 의사소통 수준의 파악 및 대상자들의 수준에 맞는 개별화된 정보전달 방식의 노력이 필요하다. 작업치료는 대상자가 속한 환경에서 보다 나은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중재 전략을 바탕으로 일상생활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도록 도모한다(Mann, Hurren, & Tomita, 1995). 또한 지역 사회에서 대상자가 삶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므로(AOTA, 2014), 노인에게 대한 스스로의 인식 수준의 자각과 더 나은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시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건의료 제공자들의 건강정보 소통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로서, 활동과 참여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전문가인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현황을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국의 병원 및 보건소 등을 포함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중재를 제공하는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 수행 전 W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으며(WKIRB-202003-SB-009), 연구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에 대한 목적, 방법, 개인정보수집 이용에 대해 설명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G*Power 3.1.9.2 프로그램(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을 이용하여 상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30, 유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계산하여 표본을 산출한 결과 최소 82명의 설문 대상자가 요구되었다. 배포된 설문지는 일반적 정보를 제외하고, 노인에게 대한 인식 관련 20문항, 노인과의 의사소통 저해요소 관련 39문항, 노인과의 의사소통 방식 관련 18문항, 총 77문항으로 전체 설문 응답에는 25분~30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온라인 형식의 자기 기입식 설문을 통하여 총 9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응답이 미흡한 9부를 제외한 82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진행되었다.

2. 측정도구

1) 노인에게 대한 인식

작업치료사의 노인에게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인에게 대해 감정적 및 행동적 반응을 평가할 수 있는 Saunders, Montgomery, Pittman과 Balkwell(1984)이 개발하고 Kang, Jung과 Kim(2009)이 번안한 노인에게 대한 지식 및 태도 관련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노인에게 대한 주관적 인식을 알아볼 수 있는 총 20개 항목의 형용사(현명한, 친절함, 무식함 등)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해당 항목에 대하여 전혀 아니다(1점), 매우 그렇다(7점) 형식의 Likert 7점 척도로 기재되며, 총점은 최저 20점에서 최고 1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20개 항목 중 6개 항목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형용사로서 응답 점수를 역변환하여 합산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 .909$ 였다.

2) 노인과의 의사소통 저해요소

Kim과 Kim(2009)은 115편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노인들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호흡능력, 음성능력, 조음능력, 청각능력, 언어이해능력, 언어표현능력의 6항목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이 6영역을 기초로 노인들의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실제 생활에서의 문제들을 6영역, 39항목으로 도출하여 설문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호흡 및 시각 관련 3문항, 음성 관련 3문항, 조음관련 2문항, 청각 관련 3문항, 언어이해 관련 16문항, 언어표현 관련 12문항 이었다. 항목이 많은 언어이해 및 언어표현의 경우 글(문자), 연관 인지능력, 의미, 형태·구문, 담화의 하위 5영역으로 세분화하였다. 각 문항은 해당 항목에 대한 의사소통 문제가 전혀 없음(1점), 매우 심각(5점) 형식의 Likert 5점 척도로 기재되며, 총점은 최저 39점에서 최고 19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화로 인한 해당 영역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 .960$ 이었다.

3) 노인과의 의사소통 방식

작업치료사들의 노인과의 의사소통 방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Lee와 Gang(2019)이 개발한 의사소통행위 측

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8문항으로 대화 반응 관리(5문항), 관계조절(3문항), 정서표현(6문항), 이해증진(4문항)의 4개 요인영역으로 구분되었다. 보건 의료인이 노인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행동적·정서적 노력에 따라 항상 그렇지 않다(1점), 항상 그렇다(4점) 형식의 Likert 5점 척도로 기재되며, 총점은 최저 39점에서 최고 9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8개 항목 중 3개 항목은 부정적 노력을 표현하고 있으며, 해당 항목은 응답 점수를 역변환하여 합산하였다.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α =.909 이었다.

3. 분석방법

자료는 SPSS Ver.22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한 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의사소통 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사용하였고, 노인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노인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

저해요소, 의사소통 방식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 coefficient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설문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Table 1).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는 82명으로 대상자의 성별은 여자가 57명(69.5%)으로 남자보다 많았고, 근무 현황은 병원(31명, 37.8%), 상급종합병원(22명, 26.8%), 장기요양시설(10명, 12.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대상자의 임상 경력은 3년 이상부터 5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33명, 40.2%), 담당하는 대상자의 노인 비율은 80% 이상이 37명(45.1%)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대면하는 노인 중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노인대상자를 대면하는 비율은 30% 이상부터 50% 이하가 30명(36.6%), 51% 이상부터 80% 이하가 26명(31.7%)이라고 응답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82)

| variable | Classification | Number of subjects | Percentile |
|---|---------------------------|--------------------|------------|
| Gender | Male | 25 | 30.5 |
| | Female | 57 | 69.5 |
| Working environment | Hospital | 31 | 37.8 |
| | Advanced General Hospital | 22 | 26.8 |
| | Long-term care facility | 10 | 12.2 |
| | General Hospital | 9 | 11.0 |
| | Etc. | 10 | 12.2 |
| Years of clinical experience | Less than 3 years | 14 | 17.1 |
| | 3~5 years | 33 | 40.2 |
| | 6~10 years | 21 | 25.6 |
| | More than 10 years | 14 | 17.1 |
| Percentage of elderly people in charge | Less than 30 % | 6 | 7.3 |
| | 30~50 % | 15 | 18.3 |
| | 51~80 % | 24 | 29.3 |
| | More than 80% | 37 | 45.1 |
| Percentage of elderly people who need communication | Less than 30 % | 15 | 18.3 |
| | 30~50 % | 30 | 36.6 |
| | 51~80 % | 26 | 31.7 |
| | More than 80% | 11 | 13.4 |

2.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

20개의 긍정형, 부정형 형용사로 구성된 노인들에 대한 노인 인식 조사에서 응답대상자들은 아픈(5.09±1.46), 고집이 센(5.06±1.21), 보수적인(4.93±1.35), 불평 많은(4.79±1.23), 좋은(4.57±1.12)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정형 6문항을 역변환하여 총 20 문항에 대하여 점수 계산한 결과 평균 3.79±0.54점, 합산 점수 81.90점을 나타냈다(Table 2).

3.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저해요소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저해요소를 파악한 결과 청각 관련(2.90±0.66), 언어이해 관련(2.86±0.60), 조음 관련(2.74±0.58) 순으로 노인들과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의사소통을 가장 저해하는 요소

로 꼽힌 청각 관련 하위 문항들을 살펴보면 먼 거리에서 하는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3.07±0.94), 마스크를 쓰고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워해서(2.91±0.94), 주변이 시끄러우면 잘 알아듣지 못해서(2.83±0.78), 말 귀를 잘 알아듣지 못해서(2.79±0.77)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노력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반영된 대상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의 설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Table 4). 응답대상자들은 대화반응 관리(3.97±0.85), 정서표현(3.71±0.71), 이해증진(3.71±0.70), 관계조절(3.51±0.79) 순으로 노인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반응 관리의 하위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

Table 2. Subjects' general perception of the elderly

(n=82)

| Adjective | Raw scores (M±SD) | Inverse transform reflected score (M±SD) | Rank |
|---------------|----------------------|---|------|
| wise | 4.17±1.24 | | 10 |
| kind | 4.51±1.38 | | 6 |
| ignorant* | 3.39±1.41 | 4.61±1.41 | 20 |
| happy | 3.78±1.47 | | 13 |
| reliable | 4.28±1.29 | | 7 |
| selfish* | 3.79±1.55 | 4.21±1.55 | 12 |
| active | 3.44±1.48 | | 18 |
| neat | 3.54±1.26 | | 16 |
| friendly | 4.24±1.29 | | 8 |
| fun | 4.24±1.31 | | 8 |
| productive | 3.40±1.46 | | 19 |
| sick* | 5.09±1.46 | 2.91±1.46 | 1 |
| good | 4.57±1.12 | | 5 |
| stubborn* | 5.06±1.21 | 2.91±1.21 | 2 |
| independent | 3.50±1.48 | | 17 |
| conservative* | 4.93±1.35 | 3.07±1.35 | 3 |
| charm | 3.80±1.29 | | 11 |
| persevering | 3.72±1.44 | | 14 |
| optimistic | 3.62±1.32 | | 15 |
| complaining* | 4.79±1.23 | 3.21±1.23 | 4 |
| Total Scores | | Mean 3.79±0.54 Sum Mean 75.76 (Min 22~ Max 129) | |

*Negative adjective

Table 3. Factors that hinder communication with the elderly (n=82)

| Area | Number of items | M±SD | Rank |
|--------------------------------|-----------------|-----------|------|
| breathing and vision related | 3 | 2.48±0.57 | 6 |
| voice related | 3 | 2.67±0.58 | 4 |
| articulation related | 2 | 2.74±0.58 | 3 |
| hearing related | 3 | 2.90±0.66 | 1 |
| language understanding related | 16 | 2.86±0.60 | 2 |
| language expression related | 21 | 2.57±0.61 | 5 |

Table 4. Common ways of communicating with elderly (n=82)

| Area | Number of items | M±SD | Rank |
|----------------------------------|-----------------|-----------|------|
| conversation response management | 5 | 3.97±0.85 | 1 |
| relationship control* | 3 | 3.51±0.79 | 4 |
| emotional expression | 6 | 3.71±0.71 | 2 |
| improve understanding | 4 | 3.71±0.70 | 2 |

*Inverse transform to calculate score

펴보면 노인 대상자의 반응에 맞추어 목소리 크기와 말의 속도를 조절(4.15±0.94), 노인 대상자가 관심있거나 익숙한 주제에 대하여 대화 유도(3.96±0.92),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눈 깜빡거림, 손짓 등)을 활용한 표현 격려(3.96±1.05), 노인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문장을 반복하여 말함(3.93±1.02), 예/아니오로 쉽게 대답할 수 있도록 답변 유도(3.87±1.00) 순으로 응답하였다.

5. 대상자들의 일반적 정보와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노력과의 상관관계

응답 대상자들의 일반적 정보 중 성별, 임상 경력, 대면하는 노인 환자 비율에 따라서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방식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응답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하위 요소와 의사소통 노력 하위 요소와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내는 항목은 없었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ommunication efforts with the elderly (n=82)

| communication effort | general characteristics | | | |
|---|----------------------------------|-----------------------|----------------------|-----------------------|
| | conversation response management | relationship control* | emotional expression | improve understanding |
| gender | .054 | -.185 | .063 | .054 |
| clinical experience period | -.183 | .104 | -.056 | -.062 |
| percentage of elderly people face to face | .179 | -.101 | .112 | -.065 |

*Inverse transform to calculate score

Table 6. Correlation between respondents' efforts to communicate with the elderly toward the elderly (n=82)

| | conversation response management | relationship control* | emotional expression | improve understanding | total score of common ways of communicating with elderly |
|--|----------------------------------|-----------------------|----------------------|-----------------------|--|
| total score of general perception of the elderly | .287** | .248* | .025 | .093 | 0.96 |

*Inverse transform to calculate score

*p<.05, **p<.01

6. 노인에 대한 인식과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노력과의 상관관계

응답 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 총점과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노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 본 결과는 Table 6과 같았다.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노력 관련 4개 영역 중 대화반응 관리($r=.287$)와 관계조절($r=.248$)의 두 영역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고찰

작업치료사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의 하나로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직접 환자를 대하며 환자들의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 및 작업적 수행을 위한 의료 재활 및 사회재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Kwon, Roh, Chang, Won, & Sim, 2007). 작업치료사는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기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상호작용과 작업치료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적이다(Lee, 2013). 특히, 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사회적 맥락의 변화로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업치료사를 비롯한 다차원적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협업적 접근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노인들의 의사소통 관련 능력 저하 양상 및 현 수준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Kim & Kim, 2017a).

이에 본 연구는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노인들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현황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수행을 위해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중재를 제공하는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82부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노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보면 20개 항목 중 상위 5개의 형용사 중 4개는 부정적 형용사, 1개는 긍정적 형용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위 4개의 부정적 형용사는 ‘아픈’, ‘고집이 센’, ‘보수적인’, 그리고 ‘불평 많은’ 이었으며 1개의 긍정적 형용사는 ‘좋은’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식을 보여주는 전체 평균은 부정적 인식에 치우친 결과를 보였다.

노인에 대한 태도, 이미지, 인식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이는 연구(Shin, 1996)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연구(Han, 2000)도 있다. 노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Yi & Park, 2002)으로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노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Lim, Kim, & Kim, 2002). Yi와 Park(2002)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지식이 대학생의 노인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에 대한 지식이 노인에 대한 태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Lee, 1999), 노인복지학과 학생들이 다른 전공 학생들에 비해 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Han, Ryu, & Kim, 2007), 노년학 과목을 수강한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연구(Yi & Park, 2002)를 보면 노인에 대한 지식수준이 노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면, 국외 문헌에서 일관되게 의료 전문가 집단에 상당한 연령주의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Cooper & Coleman, 2001; Eymard & Douglas, 2012). 이는 의료전문가들이 노인들과의 잦은 상호작용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더욱 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흡수하게 된다는 것인데(Greene, Adelman, Charon, & Hoffman, 1986), 본 연구의 응답 대상자 82명 중 54.4%인 61명에서 담당하는 노인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대면하는 노인 중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대상자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37명(45%)인 것으로 나타나, 응답대상자들의 잦은 노인들과의 대면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정립에 일조하였으며(Kim, Ju, Oh, & Chung, 2016), 결국 치료적 관계 형성과 상호 의사소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둘째, 노인들과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청각과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33%가 청력장애(hearing loss)를 보일 정도로 노년기에 청력 장애나 청각 기능을 통한 정보처리의 부족은 흔하게 보이는 현상이다(Glorig & Roberts, 1965). 일반 노인들에게는 적정 수준인 소리 크기로는 대화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대화 시 중요한 단어를 듣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변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연구(Wingfield & Grossman, 2006)는 본 연

구의 결과와 상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지속적인 의사소통능력의 감소는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과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소로 청각 관련, 언어이해 관련, 조음 관련 순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노인성 질환과 같은 병적인 이유로 의사소통능력이 떨어졌다고 보기보다는 노년기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노화과정으로 의사소통능력의 기능이 감소하여 의사소통을 방해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고령자 통계에서도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응답한 향후 개선되어야 할 복지서비스로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꼽은 것을 통해서도(Statistics Korea, 2016), 고령사회와 맞닥뜨린 국내의 경우 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차원적 보건의료 서비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에 노인의 의사소통 영역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Kim & Kim, 2009).

셋째,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노력을 확인한 결과, 대화반응 관리, 정서표현, 이해증진, 관계조절의 순으로 노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의 중심이 서비스 제공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면서 수요자와의 의사소통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치료적 관계에서 이러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Kang & Lee, 2006).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Oh(2008)의 연구를 살펴보면, 공감적 이해의 방법과 기술,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의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의사소통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수단이 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하여 얼마나 상호작용을 잘 하는가는 의사소통 능력을 의미한다(Lee, 2012).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한 인식과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개선을 위한 노력과의 상관성을 확인한 결과 대화반응 노력과 관계조절의 2개 영역에서만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 대상자들의 근무 환경이 대부분 병원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대화반응 노력의 하위 항목인 문장을 반복하여 말하거나, 목소리의 크기와 말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예/아니오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등 언어적이고 기술적인 면에서 노인

들과의 의사소통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정서표현 및 이해증진 영역의 하위 항목인 미소를 지으며 긍정적 관심을 표현하거나, 칭찬과 격려를 활용하거나, 눈을 맞추며 대화에 집중하는 등의 비언어적이고 정서적인 접근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치료 및 주의사항과 관련한 직접적인 정보 제공이 주를 이루고 다수의 환자들이 오고가는 병원환경의 특성 상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을 구현하기 어려운 점은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의 정보 전달 수위를 증진시키고, 말하는 사람의 사고와 태도를 반영하여 상호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Kim & Jang, 2004),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작업치료사들의 노인들에 대한 정서표현과 이해증진을 통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강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전국의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나 지역적인 고른 안배를 통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작업치료사들의 근무하는 기관의 도농 간 위치, 근무처의 유형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통계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도 제한점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하여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으며 전문가 집단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연령주의를 작업치료 영역에서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업치료사들은 실제보다 과장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노인들과의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노년에 대한 인식은 고령자들을 대하는 태도의 바탕이 된다. 작업치료사는 대상자들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증진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전문가인 만큼 노인들에 대한 정보 교육 및 의사소통 방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고민들과 더불어, 향후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개선 방법의 적용이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작업치료사들은 대상자들의 독립적인 일상생활활동

및 작업적 수행을 위한 의료재활 및 사회재활의 역할을 수행하며 여러 영역에서 노인들과 의사소통 한다. 참여전문가로서의 작업치료사들에게 대상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작업치료 중재의 효과적인 수행 및 대상자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작업치료사들의 노인에 대한 인식 및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건의료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는 전문가 집단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연령주의를 타파하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강화한 노인들과의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노년에 대한 인식은 고령자들을 대하는 태도의 바탕이 된다. 작업치료사는 대상자들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증진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전문가인 만큼 노인들에 대한 정보 교육 및 의사소통 방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고민들과 더불어, 향후 노인들과의 의사소통 개선 방법의 적용이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19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19 S1 A5 A2 A 03035246)

REFERENCES

-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AOTA). (2014).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and proces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8, S1-S48. doi:10.5014/ajot.2014.68s1
- Cooper, A., & Coleman, G. (2001). Caring for the older person: An exploration of perceptions using personal construct theory. *Age and Ageing*, 30(5), 399-402. doi: <https://doi.org/10.1093/ageing/30.5.399>
- Eymard, A. S., & Douglas, D. H. (2012). Ageism among health care providers and interventions to improve their attitudes toward older adults: An integrative review.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38(2), 26-35. doi: <https://doi.org/10.3928/00989134-20120307-09>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1149-1160.
- Forte, R., Boreham, C. A., De Vito, G., & Pesce, C. (2015). Health and quality of life perception in older adults: The joint role of cognitive efficiency and functional mobi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2(9), 11328-11344. doi: <https://doi.org/10.3390/ijerph120911328>
- Fowler, C., Gasiorek, J., & Giles, H. (2015). The role of communication in aging well: Introducing the communicative ecology model of successful aging. *Communication Monographs*, 82(4), 431-457. doi: <https://doi.org/10.1080/03637751.2015.1024701>
- Glorig, A., & Roberts, J. (1965). *Hearing Levels of Adults by Age and Sex*.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 Greene, M. G., Adelman, R., Charon, R., & Hoffman, S. (1986). Ageism in the medical encounter: An exploratory study of the doctor-elderly patient relationship. *Language & Communication*, 6, 113-124.
- Han, J. R. (2000).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3), 115-127.
- Han, J. R., Ryu, H. S., & Kim, G. J. (2007). Undergraduate students' knowledge about aging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6(3), 121-139.
- Han, S. J., Lee, Y. R., Cho, C. M., & Im, M. Y. (2015). A systematic review of literature on community health center exercise program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6(1), 18-30. doi.org/10.12799/jkachn.2015.26.1.18
- Jeong, K. H., Oh, Y. H., Kang, E. N., Kim, J. H., Seon, W. D., Oh, M. E., et al. (2014). *Survey of the elderly 2014. Annual Statistic Report*. Sejo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ang, J. S., Jung, D. Y., & Kim, Y. Y. (2009). Women university students' supporting awareness, knowledge

-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3), 851-865.
- Kang, M. J., & Lee, H. J. (2006). The effect of assertiveness training on communication related factors and personnel turnover rate among hospit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5), 681-690.
- Kim, B. Y. (2017). *Speech intelligibility on linguistic unit, speech production's coordination capability and vowel space area in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Kim, H. O., & Jung, K. H. (2009). Comparison of health lifestyle among elders according to residential Are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1(1), 16-28.
- Kim, J. H., Ju, K. H., Oh, H. I., & Chung, S. D. (2016). A Study on Ageism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professional groups: Focusing on interaction between elderly people and professionals in area of medical, social service, law and financ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1(2), 9-47. doi: 10.21194/kjgsw.71.2.201606.9
- Kim, J. H., Ju, K. H., Oh, H. Y., & Yoon, C. H. (2019). Ageism and types of subjective perception of elderly persons on the experience with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services.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3(4), 1-44. doi: 10.21562/kjs.2019.11.53.4.1
- Kim, J. W., & Kim, H. H. (2009). Communicative ability in normal aging: A review.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14(4), 495-513.
- Kim, S. R., & Kim, H. H. (2017b). Age-related changes in word defining abilities in concrete and abstract nouns with normal elderl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1(3), 187-207. doi: 10.16884/JRR.2017.21.3.187
- Kim, S. Y., & Yoon, J. H. (2016). Grammaticality judgment and error correction abilities in normal elderly.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5(3), 1-14. doi: 10.15724/jslhd.2016.25.3.001
- Kim, W. R., & Jang, S. W. (2004). *Non-verbal Communication*. Seoul: Nanam Publishing.
- Kim, W. S., & Kim, S. H. (2017a). Research trends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26(3), 35-48. doi: 10.15724/jslhd.2017.26.3.004
- Ko, H. E., Oh, M. H., Baek, J. Y., & Lee, J. S.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functions and activities and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y dwelling elderly persons: Based on ICF.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0(4), 15-28.
- Kwon, J. A., Roh, J. H., Chang, S. J., Won, J. U., & Sim, S. H. (2007). Factors a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5(1), 117-130.
- Lee, H. W. (1999). A study on the social worker's attitude toward the elderly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39, 266-289.
- Lee, J. H., Um, K. W., Yoshiko, F., & Kazuo, N.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related lifestyles and living functions of Korean and Japanese elder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2(1), 58-88. doi:10.15709/hswr.2012.32.1.58
- Lee, J. M. (2013). The effects of interpersonal relation and communication skills of occupational therapists on their work stres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gnitive Rehabilitation*, 2(1), 81-97.
- Lee, L. H., & Gang, M. H. (201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mmunication behavior scale for nurses caring for people with dement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9(1), 1-13. doi: 10.4040/jkan.2019.49.1.1
- Lee, M. S. (2015). A longitudinal study on cognitive-pragmatic language in normal aging: Demographic & experiential influenc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5(3), 797-811.
- Lee, S. Y. (2012). *Conflict management styles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f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Lim, Y. S., Kim, J. S., & Kim, K. S. (2002). Nurse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2(1), 31-46.

- Mann, W. C., Hurren, D., & Tomita, M. (1995). Assistive devices used by home-based elderly persons with arthriti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49*(8), 810-820.
- Mellor, P., Chew, D., & Greenhill, J. (2007). Nurses' attitudes toward elderly people and knowledge of gerontic care in a multipurpose health service (MPHS). *Australia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4*(3), 37-41.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7). *2016 Key Statistics of Health Insurance. Annual Statistic Report*. Wonju: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Author.
- Oh, Y. J. (2008).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the communication empowerment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based on the theory of transfer of learning*. unpublished docto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Park, H. S., Seo, S. R., & Kim, S. H. (2007). Relationships among knowledge, attitude, and use of negative control maintenance techniques toward older adults among nurses working in geriatric hospital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9*(4), 614-623.
- Saunders, G. F., Montgomery, J. E., Pittman, J. F., & Balkwell, C. (1984). Youth's attitudes toward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1), 59-70.
- Shin, C. L., & Lee, S. S. (2012).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 givers'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relation with the elderly.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6*(4), 191-209.
- Shin, G. Y. (1996). *Elderly image perceived by children and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Sims, T., Reed, A. E., & Carr, D. C. (2017).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use is related to higher well-being among the oldest old.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72*(5), 761-770. doi: 10.1093/geronb/gbw130
- Song, Y. J., Woo, H. S., Lee, H. S., Lee, M. Y., Kwon, Y. Y., & Cha, Y. J. (2016). A study on standard terminology for occupational therapy documentations focusing on the Korean-type medical institu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4*(2), 112-124. doi: 10.14519/jksot.2016.24.2.09
- Statistics Korea. (2016). *2016 Elderly Person Statistics*. Daejeon: Author.
- Statistics Korea. (2019). *Population Projections 2019*. Daejeon: Author.
- Sunwoo, D. (2016). *Policy Issues in Elderly Health and Long-term Care Policy*.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Wingfield, A. & Grossman, M. (2006). Language and the aging brain: Patterns of neural compensation revealed by functional brain imaging. *Journal of Neurophysiology, 96*, 2830-2839.
- World Health Organization. (1984). *World Health Organization constitution. In Basic documents*. Geneva, Switzerland: Author.
- Yi, Y. S., & Park, K. R. (2002). Effects of an undergraduate gerontology course of the students' attitudes about older adults: A Quasi-experiment.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1*(3), 29-41.

Abstract

Occupational Therapists' Perception and Communication of the Elderly

Park, Sung-Ji*, Ph.D., Han, Hee-Won**, Ph.D., Jung, Yu-Jin***, M.Sc., Woo, Hee-Soon****, Ph.D.

*Dep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Professor

**Dept.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Lecturer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Wonkwang University Hospital/Occupational therapis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Wonkwang University/Professor

Objective : Due to the rapid aging of the country, the elderly population is increasing and the ratio of face-to-face meetings with the elderly in major areas of occupational therapy is hig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overall perception of the elderly and the status of communication with the elderly.

Methods :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April to June 2020. Occupational therapists who provide interventions for the elderly in hospitals and public health centers across the country were collected using online questionnaires. A total of 91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roug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of which 82 were used for data analysis, excluding 9 with insufficient responses.

Results : Occupational therapists generally had a lot of negative perceptions of the elderly. In addition, as factors that hindered communication with the elderly, they responded in order of hearing-related, language understanding related, and articulation related. Lastly, occupational therapists were found to induce smooth communication with the elderly in the order of conversation response management, emotional expression, understanding enhancement, and relationship control.

Conclusions : Occupational therapists are health care professionals who play a major role in improving the subjects' social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ofessional therapeutic interventions and related education using improved communication skills along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elderly's communication skills and their level of communication.

Key words : Awareness, Communication, Occupational Therapist